영업 환경의 자율성 확보하는 한 해로

다사다난했던2006년한해가지나가고정해년새해의아침이밝았습니다. 풍요와다산을상징하는돼지의해인 2007년 한 해도 조합원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더욱번창하고풍요로워지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은 금년에도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초일류건설업전문금융기관으로거듭나기위한혁신을지속해나갈것입니다. 그리고그변화와혁신을위한노력의중심에는언제나 ‘ 조합원여러분 이계시다는것을잊지않겠습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 지난해 건설보증시장은시장개방 논란으로 한바탕 거센 파고가 일었습니다. 아직 관계부처간협의가진행중에있습니다만향후조합의 경영 환경에일대변화를 불러올 보증 시장 개방에대하여우리조합은모든역량을결집하여능동적으로대응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건설업 전문 보증기관으로서 그동안수행해 온조합본연의 역할과 사명을계속이어나갈것입니다.

존경하는조합원여러분!

우리 조합은 이러한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작년한해동안사업다각화와공신력제고를위하여다양한노력을기울여왔습니다. 작년7월에는SOC 민자사업에새롭게진출하여‘ 인천북항BTO 사업 에참여하였으며, 최근에는약4,300억원이넘는대규모사업인경전선BTL 사업에도참여하였습니다. 또한, 8월부터는삼성화재컨소시엄과근로자재해공제사업도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결과는모두조합원여러분께서그동안조합을변함없이아껴주시고항상격려와사랑을보내주신결과라고생각하며, 새해에도저희조합임직원모두는조합원여러분의성원에보답하고자최선의노력을기울일것입니다.

먼저, 조합원 여러분께서 조합을 가장 편하고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임직원의 서비스 자세와 영업 및 사후관리시스템을철저하게고객중심으로다듬고정비할것입니다. 조합은특히고객에게다가가는서비스체계 구축을 위해 금년 초 전국에 3개 권역별 보상센터를개설하여그동안일선지점에서수행하던사후관리업무를집중처리하도록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은영업 환경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합니다. 시장 환경은 가히 빛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유수의 기업들도 그 사활의 기준으로 변화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 능력을 꼽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 조합원 여러분의 경제적 지위향상이라는건설보증기관본연의사명을충실히 수행하되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할수있는기반을조성하기위해심혈을기울일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합 본연의 내부 역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건설업전문금융이라는복합기능을수행하는 조합은 다른 어떤 기관에 비해 그 전문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문성이야 말로 조합원여러분에게최상의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핵심역량이자생존경쟁력이라고할것입니다.

아무쪼록금년에는건설인여러분모두의사업이풍요의 상징인돼지를 닮아 풍성한 수확을 걷을수 있게 되기를간절히기원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丁亥年 元旦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최영철**

변화와 혁신의 힘찬 발걸음을

건설가족여러분안녕하십니까.

2007년정해년(丁亥年) 새해아침이밝았습니다.

600년에 한번 돌아온다는 ‘황금돼지의해’를 맞아 건설가족여러분모두의소망이이루어지는축복의한해가되기를기원합니다.

지난해우리건설업계는경기침체를벗어나지못한가운데대·중소업체간, 수도권·지방업체간의양극화가더욱심화되는등복잡하고어려운상황이전개되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공존과win-win의 공감대가형성되고, 윤리경영이선언되는등자구노력이전개되고있는것은그나마다행스러운일이라고생각합니다.

존경하는건설인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직면하게 될 환경은 지적 자산이 기업의가치를결정하는시대입니다. 설계도면대로시공하는것그자체는더이상경쟁력의요체가되지못합니다. 새로운환경에서 생존하는 자는 강한 자도 지혜가뛰어난자도아닌‘변화에가장민감하게대처하는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유일한 대답은‘끊임없는변화와혁신’일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나 자신부터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열심히만 하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래건설시장은소비자의욕구가다양해질 뿐만 아니라 과거와는 질적으로비교할 수 없는 수준 높은 기술을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성공과 습관을 과감히 버리고 진정 변화와 혁신을 하여야 미래를지향할수있습니다.

다음으로, 회사를창의적인조직으로재구축하여유연성을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대가 있는 게임을하였다면앞으로는자기와의게임을하는상황이 전개될 것입니다. 과거와 같은 경직된 조직으로는 다양성과 전문성을 충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빠른 시일내에자기만의독자영역을확보하고창의적으로환경변화에적응할수있도록유연한조직을구축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 문화를 창조하여야합니다. 유럽이최근급속히기력을회복하며 회춘(回春)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저변에는 사회의 투명성과 화합, 그리고 탁월한 지도력이 꼽히고 있습니다. 투명한 문화는 힘의 원천입니다. 우리 건설산업은조국근대화에커다란기여를하였음에도불구하고 부실 공사, 비자금 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투명하고 깨끗한 건설문화를창조하여야우리의미래를스스로담보할수 있을것입니다.

올한해도우리가헤쳐나가야할중요한일들이그 어느해보다많이기다리고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오늘건설산업의재도약을위한변화와혁신의힘찬발걸음을내디딘다면분명미래는우리의것이될것입니다.

복이저절로들어온다는황금돼지의해아침에어려운이야기로시작하였으나, 생각을바꾸면우리모두의 새로운 꿈과 희망에 관한 주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우리건설가족모두에게평안과희망이넘치는 한해가되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丁亥年 元旦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박덕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대망의정해년, 2007년이밝았습니다.

지난해에도 주택건설업계의 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성원해주신모든분들께감사드립니다.

새해는언제나우리에게벅찬희망과소망을던져줍니다만 주택 건설인의 한 사람으로서 2007년을 맞는 마음이 그리 밝지만은 않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정부가 2003년 10·29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 이후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건축 규제 강화 조치와수요 억제 정책을 잇따라시행함으로써 지난 한 해 동안 주택건설경기가깊은침체의수렁에서벗어나지못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말 당정이 고강도 주택 규제정책인민간택지에공급되는민간아파트분양가상한제를실시키로합의함에따라올해신규아파트분양 시장이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며, 전국의 대다수주택건설업체들이심각한경영위기에직면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원가공개, 공공택지공영개발확대, 부동산세제·금융 규제 강화, 민간택지분양권전매제한, 재건축규제 등강도높은부동산 규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주택업계의사업여건은더욱악화될것으로우려됩니다.

이러한 주택건설업계의 위기는 주택산업에 그치지 않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연관 산업과 고용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산업에 비해 탁월한 주택산업특성상가뜩이나침체된경제전반에미칠악영향이매우클것으로예상됩니다. 따라서, 정부는내수 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하루빨리회복되어 경제 성장의 주춧돌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보다전향적이고실질적인주택산업활성화대책을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아파트 원가 공개 및 분양가상한제 실시 방안을 철회하고, 공공택지개발에민간업체참여허용과함께 후분양제 조기 확대 실시 재검토 등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민간택지에짓는민간아파트의분양가를통제하는것은위헌의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민간부문 주택 공급에 심각한 위축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큰만큼반드시철회되어야합니다.

또한, 금년에도 주택 공급 감소가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민간택지개발허용등특단의택지공급확대방안과지속적인신도시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활성화 등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 시급합니다. 공공과민간 부문의 명확한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공공 부문은 경제적능력이떨어지는영세민들의주거안정을위해 값 싸고 튼튼한 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부문은정부의시장개입을최소화하고시장자율기능에 맡겨소비자가원하는품질의주택을충분히공급하도록유도하는것이절실합니다. 이와함께주택업체들도 소비자중심시대를맞아치열한경쟁에서생존하기위한 과감한 경영 체질 개선 노력과함께전문성을 키워 경쟁력을제고해야할것입니다.

새해에는 7,000여 주택 건설인들이 편안하게 주택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협회에서는 회원사 모두가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있도록혼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丁亥年 元旦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고담일**

창립 20주년, 건설 기술인의 구심체로

건설기술인여러분! 기대와희망속에2007년새해가밝았습니다. 정해년을맞이하여여러분들의가정에건강과행운이함께하며소망하는모든일들이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 지난 한 해 건설기술인협회 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애써주신회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해는 각별히 협회가 창립 20주년을맞는뜻깊은해입니다. 우리 협회가 그동안 이룩한공과결실이 더욱 빛나고 도약하는 한해가되기를회원여러분들과함께기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밖으로는 한 · 미 FTA 등 시장 개방과이른바 BRICs로대표되는신흥개발도상국의추격에 따른 무거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장기간계속되는경기불황과불안한고용환경등으로 서민경제가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 건설업계도건설 공사수주액감소와투자감소, 그로인한민간건설시장의 부진 등으로 좀처럼 회복 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실정입니다.

그러나, 건설산업은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며, 고용 창출 효과가 지대한 국민 경제의 핵심 산업입니다. 따라서, 경제가도약하기위해서는건설산업이주춧돌역할을 해야 하며,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구축해 경쟁력있는산업으로거듭나야할것입니다.

우리 건설 기술인도 변화된 시장 환경에 맞춰 창의적인노력과자기발전으로기술력을향상시켜국제적인기술인으로서의역량과자질을갖춰그역할과능력을충분히발휘해야합니다. 특히, 작년사상최대수주로건설업계에희망을주었던해외건설의활약은건설기술인에게시사하는바가큽니다.

국가 경제를 견인하는 글로벌 전문 인력이 되기 위해서는특화된 전문 기술 능력 함양과 외국어능력향상등끊임없는자기개발이필요하며, 실무중심의교육프로그램을습득해스스로우수한기술인력으로거듭나야할때입니다. 협회에서는중 · 장기적으로국내 및해외시장개방의가속화와자유무역협정등의진전에 대응해 국내 건설 기술 자격의국제적 통용성을제고하고, 기술 인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 학 · 경력자 폐지와 기술사의 우대조치 강화를 주요골자로하고있는「건설기술관리법」 및「기술사법」등관계법률이개정 · 시행될것으로보입니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기술자의 지위에 큰 변화를몰고올것으로예상되므로대 · 내외적인환경변화에걸맞는대비를해야할때입니다. 이에협회는제도변화에대비해기술사자격시험대비과정을확대하는 한편변화된환경에능동적으로대처하기위한교육과정을확대운영해나갈계획입니다.

건설기술인여러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뿌린 희망의 씨앗이 큰 수확으로돌아오듯지금의위기를우리건설기술인의지혜와 의지로극복한다면그것은분명기회로다가올것입니다.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창립 20주년을 맞는 새해, 큰 도약의 기틀을 다지며 60만 회원과 건설 기술인의 명실상부한구심체로자리매김해나갈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노력하는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고, 가정마다기쁨과행복이함께하시기를기원합니다.

丁亥年 元旦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허 복**